

“Socionext 소시오넥스트 (6526:TYO)”

SoC 반도체 제조사

Summary

맞춤형 SoC 제조사

일본의 반도체 설계 기업 Socionext(소시오넥스트)가 지난 10월 12일 도쿄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은 원화 기준 1.8조 원으로 도쿄 시장 금년 최대의 상장이었습니 다. 공모가는 3,650엔이었으며 현재(11월 14일 기준) 6,040엔으로 +65.4% 상승했습니 다. 공모금액은 6,600억 원이었습니다. 2020년 일본 반도체 시장에서 매출 기준 10 위권이며 SoC에서는 선두권의 기업입니다.

* SoC

(System on Chip):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하나의 칩으로 구현한 기술집약적 반도체



출처: REUTERS, Tyrone Siu, File Photo

동사는 그래픽, 디스플레이, 사운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SoC(시스템온칩)*를 맞춤 설계해 주는 Fabless(팹리스) 기업입니다. SoC는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칩에 집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크기가 작아지며, 조립 과정도 단순해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급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글로벌 SoC 시장은 2021년 기준 222조원 규모인데 2030년에는 4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자율주행과 VR, 5G 등의 새로운 기술이 가시화되면서 고성능 맞춤형 SoC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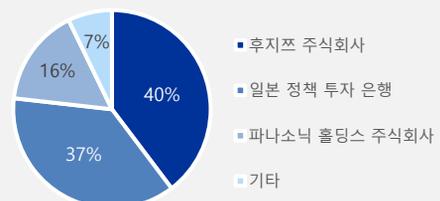
두 반도체 대기업의 합작으로 탄생

소시오넥스트는 2015년 3월, 후지쯔와 파나소닉의 시스템반도체 사업을 통합하여 설립된 회사입니다. 후지쯔는 일본 1위, 세계 10위권의 종합 IT 업체이며, 파나소닉은 전자기기 전반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설립 이후 2018년부터 맞춤형 SoC 제작에 집중하는 전략을 채택하면서 다양한 고성능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일본 기업 최초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에 쓰이는 5나노급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했고, 2022년 양산에 들어가는 등 선두권 업체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후지쯔 일본정부의 간접적인 지배 주주

소시오넥스트가 후지쯔와 파나소닉의 사업부문을 통합하여 설립된 만큼, 두 기업의 주식 보유 비율이 높습니다. 후지쯔는 주식의 40%를 소유한 최대주주이며, 파나소닉은 16%의 주식을 보유 중입니다. 그 외 37%는 일본정책투자은행이 보유 중인데 일본정책투자은행은 일본 정부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간접 소유 비율이 높다고 보면 됩니다.

< 상장 후 소시오넥스트 주주 지분율 >



출처: 소시오넥스트 투자설명서

Business

성장세 가속 글로벌 확장에 초점

소시오넥스트의 **매출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매출은 1,170억엔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했습니다. 2022년에도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 관련된 산업의 수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매출의 72%는 제품 판매에서 나왔습니다. 설계된 칩을 외부 고객사에 판매한 것으로, 주요 고객사로는 Kaga Fei Electronics Pacific Asia가 있는데 Fujitsu Electronics Pacific Asia가 이름을 바꾼 기업입니다. 매출의 24%가 NRE(Non-Recurring Engineering)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NRE는 제품의 양산화 개발 단계에서 고객으로부터 선금으로 미리 받는 매출을 의미합니다. 즉 미래 판매에 대한 선금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외 시장 개척이 주목됩니다. 일본뿐 아니라 미주, 유럽, 아시아에서도 매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매출로 분석해 보면, 일본에서 52%, 중국에서 18%, 미국에서 18%, 중국 외 아시아 국가에서 8%, 유럽에서 4%가 발생했습니다. 향후 해외 비중을 높여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담획득 금액 증가, 매출 성장 잠재력 확보

상담획득 금액은 고객사와 계약했을 때 계약에 따라 SoC의 설계 개발, 양산 단계 절반에 걸쳐 미래 매출을 가능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미래의 매출 성장 확대의 중요 지표입니다. 2018년, 2019년 3월기는 1,000억엔의 수준이었지만, 2020년 3월기부터 2022년 3월기에는 2,000억엔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2022년 6월 30일 시점의 상담획득 잔고는 약 8,800억엔입니다. 향후 상당한 성장성을 담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JPY(백만)	2020	2021	1Q22	2Q22
매출	99,746	117,009	39,934	42,833
영업이익	56,521	67,258	5,594	4,862
순이익(손실)	1,469	7,480	5,058	4,955

3월 결산법인

출처: Socionext 투자설명서

Key Insight

신기술들의 등장과 함께 SoC 수요 증가

글로벌 SoC 시장 규모는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8%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G, 클라우드, AI와 같은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고성능의 맞춤형 SoC는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The Brainsy Insights

기술력 기반 확보 선두업체 부상 가능성 높음

이 같은 전망에 기반을 두고 소시오넥스트는 기술 개발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자율주행, 네트워크/데이터 센터, 5G 기지국,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기동되는 AR/VR 등의 첨단 분야에서 사용하게 되는 맞춤형 SoC의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성장하는 시장에서 선두권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본에서의 지위를 활용해 해외로 확대함에 따라 향후 동사의 성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